

■ 교육

'SAT가 ACT보다 어렵다'는 소문의 진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대학 입학에 위한 표준화 시험인 SAT와 ACT에 대해 나도는 소문 하나가 있다. 바로 SAT가 ACT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이강렬) 소문의 진실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 ACT가 SAT보다 쉽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는다. SAT 시험을 여러 번 봐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ACT로 바꾸면 안 되나요' 라고 말을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문장, 즉 ACT 지문이 SAT보다 쉽다. 그러나 지문이 대단히 길고, 또 질문 문항이 훨씬 많아서 객관적으로 ACT가 SAT보다 쉽고 그래서 점수가 더 잘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17년 3월 이전의 SAT는 분명 문제가 어려웠다.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ACT보다 어려웠다. 평생에 한번 쓸까 말까 하는 어려운 단어가 지문 속에 등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ACT로 쏠리고, 이곳저곳에서 SAT 문제점을 지적하자 콜먼 SAT 회장은 2017년 3월부터 대대적으로 SAT 시험을 개편했다. 결과적으로 ACT와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게 됐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도 SAT 시험이 ACT보다 단어나 문장, 문제에서 조금 어렵다. 그러나 SAT의 경우 문제 지문이 짧다. 반면 ACT는 지문과 문제가 길다. 따라서 독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ACT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지문과 문제를 다 못 푸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와 단어가 다소 어렵고 짧은

지문의 시험을 선택할 것인가? 지문과 문제가 다소 쉽고 긴 지문의 시험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시험을 모두 풀어본 학생들의 점수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따라서 어느 시험을 봐도 결과는 비슷하다. 독해 능력과 독서량, 그리고 패턴에 얼마나 익숙해졌느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그것은 미미하다.

■ 명문 대학은 SAT를 선호한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한때 동부 명문 대학들이 SAT를 선호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대학이 어느 시험을 더 선호하는 일은 결코 없다. 모든 대학들이 두 시험을 똑같이 인정하고 있다.

■ ACT를 보면 SAT subject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 룰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다. 그렇다고 모든 대학이 모두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 ACT를 보면 SAT 서브젝트를 면제시켜 주는 곳이 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는 그 대학이 어떤 SAT 서브젝트 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대학 지원 준비를 해야 한다.

■ 표준화 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읍서널 대학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대학마다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Optional 대학의 경우 높은 SAT 성적을 갖고 있다면 분명 제출하는 것이 좋다. SAT 성적이 낮을 경우 이 점수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강력한 요소, 예를 들어 GPA나 에세이, 특별활동 등의 기록을 내면 된다. 그러나 굳이 좋은 SAT 성적을 내지 않을 이유는 없다.

남가주가 볼 만한 곳

다나 커브 파크(Dana Cove Park)

주말에 바닷바람이 쐬고 싶을 때 가족들과 다녀오기 좋은 곳이다. 적당히 걸으며 다른 바닷가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즐길 수 있다.

LA나 OC에서 5번 남쪽 방향으로 달리다가 Exit 79에서 내려 우회전하면 패시픽코스트하이웨이(PCH)와 만난다. PCH를 타고 가다가 Dana Point Harbor Dr.를 만나면 좌회전, Golden Lantern길을 만나 좌회전하자마자 오른쪽 주차장으로 진입한다. 이곳은 4시간까지 주차비 무료이다.

주차하고 바다를 바라보고 심호흡을 한 뒤에 오른쪽으로 걸어간다. 요트들의 선착장을 왼쪽으로 바라보고 오른쪽은 PCH 길 위로 자동차들이 썹썹 달리고 도로 건너편에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대형 주택, 식당들이 줄지어 있다.

잠시 걸다 보면 다나 커브 파크에 이르게 된다. 미국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이 타고 왔음직한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곳이 보이고, 파크 앞에 그리 크지 않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해수욕은 물론 보트를 빌려 탈 수도 있고 서핑을 할 수도 있다. 보트나 서핑을 위한 보드 등을 대여해 주고 원하면 초보적



인 강습도 받을 수 있다.

바비큐를 즐기고 싶다면 백사장 근처 잔디밭에 그릴이 준비되어 있다. 필자가 찾았던 지난 주말에는 한인 부부대 여섯 쌍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도시락을 준비해 가는 것이 귀찮다면 식당을 이용해도 좋다. 주차장 근처에 식당들이 있으며 음식은 먹을 만했고,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다.

☞ 주소: 24201 Dana Point Harbor Dr. Dana Point, CA 92629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